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사찰(寺刹)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5가지 지문 중에서 정답지문을 명확히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마지막 최종 마무리 정리 시간에 최신판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를 했더라면 반가운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준비를 다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낯선 지문들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 Box형 문제에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른바 소거법)을 연습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매우 난감했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 ② 금년 시험은 Box형 문제가 5문제(선별형과 O·X 조합형)나 출제되어 역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였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은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출제하여 연습시킨 바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③ 또한 금년 시험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적인 내용의 지문이 역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체감 면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략 1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④ 위와 같은 점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및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처했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볼 때 작년에는 6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합격선이라면, 금년에는 40문제 중 8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합격선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별적 평가 및 예상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더더욱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4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②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문제가 대략 5문제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채권·물권·가족법 모든 영역을 지문으로 구성한 문제는 1문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면에서 변별력은 크게 높지 않았다고 보입
니다.

- ③ 다만 소송법적 사고와 집행법적 사고 등이 있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10개
정도 출제되어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니다.

(2) 영역별 평가

-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형·사례형
6문제	19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종합/Box형
7문제	17문제	11문제	4문제	1문제/5문제

작년에 비해 Box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영역별로는 골고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4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길었으나 이는 매년 같은 현상이
였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
었어야 했습니다. 평소 판결요지를 볼 때 일단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살펴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문구 등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지문이 읽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문제나 지문으로 보이는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민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 ▶ 비법인 사단과 교회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임의대리 ▶ 부관 ▶ 소멸시효 ▶ 제척기간
채권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상계·손해배상 ▶ 채권자취소권 ▶ 채권양도 ▶ 변제 ▶ 상계 ▶ 경개, 공탁
채권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행 항변권 ▶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과 - 제535조 책임 ▶ 민법상 임대차와 상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 위임 ▶ 준소비대차 ▶ 불법행위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 일반 - 중복등기, 불법말소, 등기의 추정력 등 ▶ 물권적 청구권, 말소등기청구 ▶ 점유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 점유취득시효 ▶ 부합 ▶ (준)합유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전세권 ▶ 유치권 ▶ 물상보증인 ▶ 저당권과 근저당권
가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혼 및 사실혼관계 ▶ 친자관계 ▶ 후견 ▶ 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

이렇듯 각 영역별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년 출제되었던 또는 중요한 주제인,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무불이행의 성립 및 효과로서의 해제, 부당이득, 공유, 명의신탁 등이 단독·고유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Box형·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차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예상되는 컷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혁준 올림